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84 -

“학생이 학교 청소하는 시대, 이제 끝!”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 발표

- 선진국 중 한국·일본 학생만 학교 청소 담당, 2021년 국가인권위 “교직원 사용 공간 학생에게 청소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인권 침해” 판단도
- 이재명 후보,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 “3월 개학 맞아 학교 청결과 위생에 더 힘쓸것”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SNS(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8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학교 청소 전문 인력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교사와 학생에게 지워진 학교 청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전국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 교무실, 복도 및 계단을 포함한 학교 전체 공간의 청소를 나눠서 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장실 및 교무실 청소를 외부 인력에게 맡긴 학교도 상당수 생겼으나, 교실 등의 청소는 여전히 학생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서울의 경우 초등 1, 2학년은 제외)이다. 특수학교 교실은 교사들이 직접 청소를 담당한다.

여타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유독 학교에서만 시설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청소는 곧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적 활동’ 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관행 때문이라고 민주당 선대위는 밝혔다. 이렇다 보니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일부 사립 특목고를 제외한 대다수의 학교는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에 대해 헌법상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판단 이후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학생에게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교육 행위로서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 셈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들에서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청소를 맡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며 학교 청소 관행 개선을 공약했다.

초·중·고교의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청소업무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은 더욱 충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 인력 지원은 학생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3월 개학을 맞은만큼 코로나 시기 학생 및 교사의 안전하고 청결한 학교생활을 위해 위생에 더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참고자료

□ 학교 청소 현황

- 전국단위 학교 실태조사 전무하여 정확한 학교 상황 파악은 안 되고 있음
- 서울교육청 소속 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는 교사가 교실 청소를 하고 있고, 초·중고·는 학생이 교실 청소를 담당, 화장실과 교무실 등은 외부 용역인력이 청소(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 확대 도입하여 대부분 학교 적용)
- 교육청별로 학급규모에 따라 최소 용역인력을 배정하고 있으나 복도, 계단 등 기타 영역을 커버할 인력 지원이 부족하여 학부모 민원 상존
- 전국 17개 교육청 초·중·고 공통적으로 학생이 교실 청소
 - * 서울의 경우 특별히 초등 1, 2학년의 경우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여 위탁

□ 소요 예산(예산 상황 고려 점진적 추진)

- 초등학교 우선 추진 시 소요 예산 : 1,539~3,078억 원
 - 초등 6157개교, 1인~2 배치, 17개 시도당 약 90~180억 원 부담
 - *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과 소규모 학교 감안 시 시도교육청 부담 감소 예상
- 전국 초·중·고 동시 추진 시 소요 예산 : 2,750~5,500억 원
 -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 외에 1~2인씩 추가 배치, 청소 시간(1일 5~6시간)
 - 초중고 약 11,000개 학교, 17개 시도교육청 당 약 162~324억 원
 - *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과 소규모 학교 감안 시 시도교육청 부담 감소 예상